

2024년 도
국 정 감 사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1 반

국 회 사 무 처

피감사기관 충청북도경찰청

일 시 2024년10월17일(목)

장 소 충청북도경찰청회의실

(16시03분 감사개시)

○반장 신정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충청북도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진행에 대해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여야 간의 합의에 따라서 주질의 5분, 보충질의 3분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자치경찰위원장과 위원회 사무국장이 함께 배석해 있으니 위원님들 질의는 기관증인 또는 일반증인 모두에게 질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이 국정감사에서 진술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확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 시 모욕적인 언행 또는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절차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청장이 기관증인을 대표해서 선서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가 선서할 때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소관 증인들 역시 모두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학관 충청북도경찰청 청장 나오셔서 소관 기관증인을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경찰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충청북도경찰청

청장 김학관

공공안전부장겸 생활안전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수사부장 최종상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김기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목성수

형사과장 양윤교

여성청소년과장 김용원

수사과장 이상엽

홍보담당관 노광식

치안정보과장 박희규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손희택

경비과장 윤원섭

교통과장 신광수

범죄예방대응과장 이규환

안보수사과장 나인철

형사기동대장 김항년

○**반장 신정훈** 증인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증인 선서 순서입니다.

선서는 이광숙 자치경찰위원장이 일반증인을 대표해서 선서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
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가 선서할 때 사무국장도 함께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러면 이광숙 위원장 나오셔서 일반증인을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광숙**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안전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
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
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증인 이광숙

증인 남성현

○**반장 신정훈** 증인 여러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관장 인사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충청북도경찰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참석한 기관증인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충북경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통하여 그동안 추진해 온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충북경찰청 전 직원들은 국정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충고와 고견에 귀 기울이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치안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경찰청은 반듯한 충북경찰, 품격 있는 치안을 치안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도민의 신뢰와 존경받는 경찰이 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범죄와 사고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청소년 도박 없는 청정한 충북 만들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을 충북경찰 중점 추진업무로 선정하여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민 안전을 위해서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재해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재난상황실 운영 및 기능별 협업을 강화하였고 상황에 따라 선제적으로 경찰력을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할 수 있도록 사전 모의훈련 및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재해·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믿음직한 경찰이 되기 위해 경찰 수사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책임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 환경을 개선하여 현장 대응 역량을 높여가겠습니다.

경찰 수사나 업무 처리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경찰 업무 전반을 재점검하여 불합리·불공정·불친절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기본과 원칙을 지키면서 긍지와 보람을 느끼면서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와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도 배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충북경찰청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 자리에 참석한 지휘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우 공공안전부장입니다. 생활안전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최종상 수사부장입니다.

김기영 112치안종합상황실장입니다.

목성수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입니다.

양윤교 형사과장입니다.

김용원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이상엽 수사과장입니다.

노광식 홍보담당관입니다.

박희규 치안정보과장입니다.

손휘택 청문감사인권관입니다.

윤원섭 경비과장입니다.

신광수 교통과장입니다.

이규환 범죄예방대응과장입니다.

나인철 안보수사과장입니다.

김항년 형사기동대장입니다.

(인사)

앞으로도 충북경찰청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현황 보고는 서면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장 신정훈 그러면 지금부터 주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반갑습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청장님, 최근에 가정폭력, 스토킹, 아동학대 등 관련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관계 경찰들에게 관련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적정하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교육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교육을 어느 정도 하고 계세요?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업무에서 직장 멘토링 멘토가 돼서 직장 팀장들이 주로 달라진 법령이나 제도개선들을 전달하고요.

○위성곤 위원 잠깐만요.

구체적으로 관련된 통계를 집계하거나 청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안 하고 계시지요?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관련된 교육들에 대해서 통계를 작성하시고요. 또 관련 계획을 수립해서, 향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수립해서 국감 전까지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예, 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력을 보니까 과거에 경찰을 하셨고 민간에서 자치경찰위원회를 맡고 계신데 여청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잖아요, 자치경찰위원회가. 실제 어떻습니까? 그간 시범운영하면서 어떤 성과가 좀 있었나요? 간단하게 세 가지만,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증인 이광숙 자치경찰위원회가 되면서 지금 실제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일원화된 체제하에서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 지휘 감독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가정폭력이라든가 학대 폭력, 경찰관들이 좀 더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도 36대의 차량을 지원했습니다. 그런 면 외에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위성곤 위원 한계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한계가, 세 가지만 크게.

○증인 이광숙 일단 인사권이 없고요. 그다음에 자치경찰이 이원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휘 감독하는 데, 급박한 경우나 그럴 경우 지휘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실제 경찰서 단위로 구분돼 있어서 여청과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제주인 경우는 이원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경찰이 이원화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광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특별자치도 강원, 전북, 제주, 세종을

시범 실시한다 그랬는데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 위원장협의회에서도 공통된 목소리로 이원화를 해야 실질적인 자치경찰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자치경찰의 장점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증인 이광숙 지역 주민의 소리를 듣고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정책을 수립하는 게 자치경찰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예방과, 그리고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들이고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자치경찰이 필요하지요?

○증인 이광숙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충북경찰청에는 태양광 시설로 발전하는 발전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규모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위성곤 위원 태양광 시설이 좀 되어 있나요?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저희 청은 바깥에 돼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좀 주문을 할게요. 기후위기는 지금 현재 위기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당면한 위기이고 대한민국에서 매우 중요한 위기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청사 전체 면적 중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해서 종감 전까지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태양광 시설 설치를 통해서 청을…… RE100이라고 들어 보셨지요?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경기도의 경우는 청사를 2035년까지 전부 RE100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충북경찰도 그런 것들을 해 보면 어떨까요?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 중의 일부가 있기 때문에 특히 신설되는 경찰서 위주로 설계부터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신설 경찰만이 아니라요 파출소라든가 그리고 지금 있는 각 서 그리고 본청까지 구체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청주 서원구의 이광희입니다.

2023년 7월 15일 오송 지하철도 참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는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의 의무가 있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입니다. 맞지요, 청장님?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예.

○이광희 위원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긴급구조 지원기관으로서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을 지원해야 될 의무가 있지요?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예.

○이광희 위원 충북경찰청은 총 열네 분이 기소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경찰청의 7명, 홍덕경찰서의 4명, 오송파출소의 3명 기소가 된 것 맞지요?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당일 날 궁평2지하차도 침수 시작 2시간 전, 1시간 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충북경찰청에 112신고가 있었지요?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예.

○이광희 위원 그런데 그때 출동 장소에 신고 내용, 신고 유형을 고지하고 출동 지령을 하달하고 무전으로 출동 여부, 신고 장소 도착 여부 등을 확인해야 되는데 하셨습니까?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그 당시에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재해·재난 사건의 경우 위치추적, 소방 공동 대응 요청, 현장 상황과 초동 조치를 확인해야 하는데 충북경찰청은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예.

○이광희 위원 더군다나 이분들이 기소가 된 내용 중에 오히려 재난상황실을 운영하지 않았음에도 재난상황실을 운영한 것처럼 근무일지를 허위 작성했고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또 허위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충북경찰청의 7명이 기소가 되어 있고요.

다음은 청주 홍덕경찰서입니다. 홍덕경찰서도 참사 당일 날 119치안종합상황실은 충북경찰청의 지령을 하달받은 후에 119상황실이 해야 될 일은 모두 방기한 채 오송파출소에 출동 지령만 하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송파출소에서 아무도 출동하지 않았는데 출동 여부 확인 없이 출동 처리를 한 것처럼 했습니다. 맞습니까?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예.

○이광희 위원 이것도 허위 보고지요.

그래서 재난상황실을 이곳에서도 운영하지 않았으면서도 운영한 것처럼 근무일지를 허위 작성을 해서 4명이 기소가 됐습니다.

다음은 홍덕파출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홍덕파출소 역시 참사 당일 근무자는 업무용 PC와 휴대용 PDA 알람을 통해 지령을 알았지만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출동하지 못했더라도 홍덕경찰서 119치안종합상황실이나 신고자에게 연락을 했어야 하지만 하지도 않았고 궁평제2지하차도는 인근에 다른 현장에 출동했다가도 잠시 참사 현장으로 갈 수 있었지만 가지 않았던 사실이 있지요?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비가 많이 온 것은 자연재해였지만 미호강의 제방이 유실되고 물이 넘쳐서 지하차도를 덮치고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은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인재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인재 안에는 경찰청에서 실효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출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부망인 112신고처리시스템에 출동한 것처럼 허위 입력을 하고 허위 보고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청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예, 저 8월 16일 자 부임받았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 후에 이런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받으셨습니까?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먼저 오송 참사로 인해 고인이 되신 피해자와 유족분들께 심심한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찰이 신고를 접수하고 좀 더 성의껏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통해서 재해·재난으로부터 우리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대책들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제가 보기에 충북경찰청 처음에 접수 시작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112 신고에 대해서 실효적인 조치만 취했더라도 아니, 흥덕서가 그랬더라도 아니면 오송파출소가 그랬더라도 이런 사건을 좀 최소화시키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있고요.

더군다나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대한 책임 문제는 아픈 손가락이지만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다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지 않을까요?

그래서 경찰의 이런 안이한 태도하고 출동 관련 허위입력·보고,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는 물론이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도 함께 엄중히 조사를 좀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이거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재판과 별도로 검찰 쪽에서 비위 사실에 대한 통보를 또 15명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징계를 진행 중입니다.

이 계기로 반면교사로 삼아서 좀 더 치밀하게 도민 안전을 위한 재난 대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 청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난 4월 충북청이 서울 한 경찰서를 압색했지요?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예, 그렇습니다.

○정동만 위원 어떤 사유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보이스피싱 유출범이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압수수색을 하고 검거를 한 게 있습니다.

○정동만 위원 당시 이 사건에 대해 지금 경찰청장이신 조지호 당시 서울청장이 경찰 신뢰성에 결정적인 흠결을 낸 사안이다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렇지요?

경찰 수사 정보 유출, 하루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작년 한 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 11명입니다. 청장님, 경찰 수사 정보 유출 심각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많이 돼서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수준까지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동만 위원 지난 몇 년간 수사에 있어서 경찰 역할과 권한이 계속 커졌습니다. 청장님께서 경찰을 대표해서 경찰 수사 정보 유출에 대해 각오와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사 정보 유출은 수사 신뢰의 근간이 흔들리는 아주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찰에서는 지난 5월부터 수사정보 유출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KICS라는 전산 시스템을 쓰고 있기 때문에 KICS에서의 보안을 강화했고 수사정보 유출행위자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엄정히 해서 어떤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도록 엄정한 조치를 하였고 직원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보안교육 강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정동만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청장님, 경찰공무원증 가지고 계시지요?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예, 그렇습니다.

○정동만 위원 이 경찰공무원증 분실하면 경찰 사칭 또 관서 무단출입 등 여러 가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예.

○정동만 위원 이 경찰신분증 만약에 분실을 하면 어떤 처벌 받습니까?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지금은 1차 주의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만 위원 경고 조치밖에 안 받지요?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예.

○정동만 위원 이 경찰공무원증은 일반공무원증하고 다르지요. 그렇지요? 경찰신분증은 시민들한테도 신뢰감과 또 위압감을 줄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장비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특히 사복을 입었을 경우에는 신분을 밝혀 내는 중요한 표징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동만 위원 충북청 관내에서 한 퇴직 경찰관이 장구류 반납하면서 수갑을 분실한 적도 있지요? 그렇지요?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예.

○정동만 위원 충북청 내의 장비 분실에 대한 경각심이 적은 것은 징계규정이 좀 약해서 그런 것 아닐까요?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정동만 위원 현재 총기 이외의 다른 장구류 분실에 대한 징계규정이 있습니까?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장비 관련해 가지고는 그게 문제가 되면 당연히 조사를 해서, 감찰 조사해서 징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만 위원 그래서 별도 불이익이 없으니까 공무원증과 장비 분실에 대한 관리 소홀의 걱정이 조금 큼니다. 엄격한 규정과 관리를 통해서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예, 장비 관리에 더욱 유념하겠습니다.

○정동만 위원 청장님, 충북청 경찰인력 많이 부족하지지요?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예, 그렇습니다.

○정동만 위원 인력 부족을 심화시키는 내부 문제가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충북의 모 경찰서장이 직원들한테 상습적인 폭언과 위협을 일삼았습니다. 이 사건 경찰청에서 감사 중이지요?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예, 그렇습니다.

○정동만 위원 알고 있습니까?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예.

○정동만 위원 청장님께서 서장을 불러 경고를 했습니까?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그것 전임 청장이 4월 달에 한 겁니다.

○정동만 위원 그렇게 했지요?

그래서 이 서장님과 관련해서 2명의 직원 퇴직했습니까? 1명은 병가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지요?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예.

○정동만 위원 이건 개인의 일탈 사건이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의 전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이 문제는 피해 당사자가 진정을 해서 경찰청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지휘관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 결국은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만 위원 청장님, 일선에서 성실하고 묵묵하게 일하는 경찰분들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청장이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인사말씀에도 드렸지만 반듯한 충북경찰을 만들기 위해서 저부터 솔선수범하고 지휘관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는 그런 충북경찰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히 대응해 주십시오.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예, 본청에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만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신정훈 다음은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혜인 위원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충북청장님, 제가 2년 전 이곳에서 진행됐던 충북청 국정감사에서 오창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해서 경찰의 잘못된 대응을 지적한 바가 있고 당시에 충북경찰이 피해 진술을 제대로 확보하지도 않고 증거도 수집하지 않아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점을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국정감사 이후에 충북경찰이 오창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자체적인 진상조사도 진행을 하고 경찰의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아동학대법 개정 같은 재발 방지 대책도 적극적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모범적인 변화였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국정감사도 우리 충북청이 더 충북도민들의 민생과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하기 위한 그런 변화가 시작되는 자리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여전히 좀 부족한 점들을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사건이 작년 말에 있었던 청주, 스토킹을 하던 가해자가 피해자의 고양이를 살해하고

살인예고 글을 올렸다가 체포됐던 사건입니다. 이게 가해자가 11월 한 달 동안 열일곱 번에 걸쳐서 전화를 걸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는 등 굉장히 집착적인 스토킹 행위를 보였고 피해자가 견디다 못해 11월 29일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에. 그런데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스토킹을 한다. 지금도 찾아와서 벨을 누르고 있다’ 이 긴박한 신고에 당시 경찰 대응이 어땠는지 좀 확인해 보셨습니까?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예, 말씀하신 사건에 대해서는 11월 29일 날 피의자가 피해자의 집에 와서 벨을 누르고 있었던 상태에서 신고가 됐고요. 저희 현장 경찰관이 갔는데 저희가 접수한 건 사실 이 건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수사 결과에서는 여러 번 찾아온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첫 번째 스토킹이다 보니까 강력하게 경고하고 못 오게 한 정도의 조치만을 했었습니다.

○옹혜인 위원 사실 가해자 경고와 귀가조치가 있었고 저는 그것이 문제였다고 생각하는데요. 청장님께서서는 첫 번째 신고여서 그렇게 파악하고 그냥 강력히 경고하고 돌려보냈다고 하시지만 사실 스토킹같이 관계성 범죄들은 굉장히 여러 시간 여러 횟수 당하다 당하다가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그런 사안이 처음 발생한 날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게 관계성 범죄의 특징들이고요. 사실은 그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몇 번이 있었는지 그런 진술들을 확보하고 경찰에서 추가적인 대응을 더 하는 것이 필요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토킹 피해자들의 보호조치인 응급조치나 잠정조치에 대한 검토가 이날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유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시에 그냥 첫 번째 신고였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다는 것이지요?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예, 그러니까 긴급 응급조치는 했고, 긴급 응급조치를 하려면 스토킹 행위가 어떤 지속성이나 반복성, 심각성, 긴급성이 있어야 되는데……

○옹혜인 위원 그래서 지속성이랑 심각성을 피해자에게 이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 좀 파악해 보셨습니까, 현장에서?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그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결과론적으로.

○옹혜인 위원 그렇지요. 결국에는 그래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서 고양이를 훔치고 그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합니다. 그리고 사체를 유기하고 대학 커뮤니티에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예고 글까지 올린 다음에야 구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삼자가 이 살인예고 글을 신고해서 그나마 일찍 발견이 된 거고 고양이를 살해하던 그 순간에도 사실은 피해자가 집에 없었으니까 망정이지 그날 사실 피해자가 집에 있었다면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까, 정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그런 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서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을 확인하고 실제로 그 조치들을 집행하는 절차들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스토킹으로 신고를 했는데 전조 증상이 무시가 되고 결국에는 더 나아간 진전된 분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그 경찰이 강력 경고했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공권력 무서운 줄 모르고 고양이도 죽이고 살인예고 글까지 올리는 추가 범죄에 나선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교제 살인이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 이런 스토킹에 대한 경찰의 안일한 인식과 또 부족한 초기 대응이 쌓여서 결국에는 교제 살인, 스토킹 살인이라고 하

는 강력범죄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작년 7월에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고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한 경찰들의 권한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대된 그 권한을 충청청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지시와 조치를 내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청 차원에서 스토킹 범죄 수사 관행들을 돌아보고 피해자 보호를 우선으로 한 관계성 범죄 수사지침들을 확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예, 그렇게 하겠고요.

제가 잠깐 더 말씀드리면, 스토킹 범죄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고 사건 접수 단계부터 이력 확인을 꼭 합니다. 이력 확인하고 현장에 출동하면 반드시 분리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사건의 모니터링, 사후 모니터링 이렇게 단계적 대응지침을 잘 지키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제가 주관해서 매일 상황점검회의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그 전날, 특히 여청 사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런 기회를 갖고 있는데 더 강력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옹혜인 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현일 위원 청장님, 수사기관으로서 경찰은 공명정대해야 되는 거지요?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예, 그렇습니다.

○채현일 위원 고소 고발이 접수되면, 피고발인 되면 피의자가 되나요?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예, 고발 사건은 그렇습니다.

○채현일 위원 최근에 수사 중인 피의자와 함께 행사에 참석하거나 얘기 나누거나 함께 시간 보낸 적 계세요, 혹시 청장님? 만약 그렇다면 부적절한 거지요?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사안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현일 위원 자료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0월 7일 날 이곳 충북경찰청 우암홀에서 특별강연이 있었습니다. 청장님이 참석하셨고요. 이날 강연자는 김영환 충북지사입니다. 이때 도정현안 특별강연, 충북도와 충북경찰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문제가 있지요?

지금 김영환 도지사는 피의자인가요, 아닌가요?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현재 고발사건이 있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러니까 피의자냐고요, 아니냐고요?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이 당시에는 그 사항을 몰랐습니다.

○채현일 위원 몰랐다면 무능한 거지요.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해 가지고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피의자 신분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부동산을 고가에 거래하고 관내 기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로 고발돼 가지고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받고 있습니다. 금년

1월 달에 청주지검에서 충북경찰청으로 사건이 이송됐고요. 그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지방정부 단체장임을 감안하더라도 형사피의자를 경찰청으로 불러와 가지고 행사를 열고 사진을 찍고 그러면 오송 지하 참사의 피해자들,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공정과 정의의 상식에 부합합니까? 이것은 경찰청의 내부감찰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봐요.

말씀해 보세요, 한번. 청장님 말씀해 보세요, 한번요. 이 사안을 언제쯤 아셨나요? 김영환 지사가 피의자고 이 행사가 부적절하다는 걸 언제쯤 인지를 하셨나요, 청장님이?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김영환 지사가 경찰청에 와서 특강을 한 것은 주최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아시겠지만 자치경찰위원회는 도 산하기관입니다.

○채현일 위원 장소가 어디인가요, 그러면 거기가? 여기지요?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예, 대상이 아까 자치경찰……

○채현일 위원 경찰청 내부에서 수사하는, 피의자를 수사하고 공명정대하다는 그곳에서 피의자인 도지사를 만나고 사진 찍고 그러면 공정한 수사가 된다고 생각할까요, 그것을 담당하는 수사관들이? 청장님의 의중이나……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저희 수사는 독립돼서 하기 때문에 증거와 법리대로 수사를 공정하게 할 겁니다.

○채현일 위원 그러면 다른 피의자들도 이렇게 만나거나 초청을 하거나 그렇게 대합니까?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그렇게 통상 하지는 않습니다.

○채현일 위원 향후에 만약에 이런 비슷한 일이 생기면 또 그렇게 할 겁니까?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제가 사전에 알았다면 좀 달리 생각했을……

○채현일 위원 사전에 몰랐다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 정도는 보고 체계가 안 되는 겁니까?

이런 사건이 있고 나서요…… 이 내용도 제가 제보받은 거예요. 내부에서요. 경찰 직분에 충실하고 공명정대하게, 경찰 직분에 충실한 분들이 얼마나 당혹스럽고 또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이걸 법 감정에 안 맞는 겁니다. 피의자잖아요, 피의자. 업무 협조를 한다고 그러면 간접적으로 일반 직원들이 할 수는 있지만 경찰청장님이 현수막을 들고 찍고 강연을 봤고……

다시는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서 이런 특혜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하게, 공정하게 처신해 주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예, 말씀하신 대로 수사 사건에 대해서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공정하고 엄정하고 냉정하게 법리대로 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신정훈 청장님, 지금 채현일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은 수사를 공정하게 해야 된다 그 지적은 물론이고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이해관계 당사자들과의 관계, 처신…… 지금 국가와 국민들의 법 감정은, 고위공직자들의 윤리라든가 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에 밥 먹는 것도 규제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수사를 공정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국민들의 법 감정이라든가 이해충돌이라든가 수사의 균형·중립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어쨌든 간에 의도적으로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대외적으로 다 비치는 거고 수사관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를 청장이라든가 아니면 청이 장소를 제공하고 추진했다 이런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신정훈 늘 힘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국민들의 여러 가지 어떤 피해의식이랄까 또 불공정 이런 것에 대해서 경찰은 어느 기관보다 더 엄정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 배준영 위원입니다.

청장님, 업무보고 9페이지를 보면 맨 첫 번째로 나오는, 중점 추진업무 중에 ‘청소년 도박 없는 청정한 충북 만들기’ 이겁니다. 맞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5년간 제가 도박 소년범을 보니까 22년까지 100명 미만이었다가 23년부터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올해는 3배 넘게 증가한 3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건된 청소년들의 평균연령도 점점 낮아지는데 청장님, 전국 평균 청소년 도박 유병률이 약 2.4%인데 충북도의 청소년 도박 유병률은 3.4%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예, 그렇습니다.

○배준영 위원 충북에서 올해 7월까지 도박을 끊기 위해 상담을 받은 청소년 수가 전년 28명에서 106명까지 급증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각오를 밝혀 주시고.

특히 여기 9페이지에 구체적으로는 안 쓰여 있는 모양인데 요즘 온라인 도박이 제일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도박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 도박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이나 각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제가 8월 16일 날 부임해서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로 ‘청소년 도박 없는 청정 충북 만들기’라는 이름하에 청소년 도박을 근절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예방과 조기 발견을 하기 위해서 스쿨폴리스를 통해서 교육도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관기관과 협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 교육청하고도 협업을 했고, 특히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도박문제치유원이라는 데가 있어서 거기에서도 협업을 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저희는 불법 사이트를 검거하거나 차단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가기 위한 루트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애들이 주로 요새 웹툰이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너무나 쉽게 도박 사이트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법 웹툰이나 이런 것 통로를 차단하는 그것들을 우리 사이버수사전담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나중에 결과를 보겠습니다.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예.

○배준영 위원 그리고 두 번째, 학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충북 학생 관련 각종 지표들이 있는데 학생 수는 주는데 학교폭력 피해자는 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에서 실시된 2024년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충북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무려 2.3%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3년 사이에 약 2배가 는 건데, 예전에는 피해자가 100명 중 1명인데 지금은 50명 중 1명이니까 이것도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112·117에 신고된 건수가 나날이 늘어서 가해자가 처벌받는 비율도 3년 사이에 28%가 증가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32페이지 보면 지난번 때도 이 지적을 받아 갖고 여기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 걸로 쪽 나와 있고 학교전담경찰관도 늘었고……

학생 수가 주니까 1인당 담당하는 학교 수도 줄었는데 학교폭력은 매년 증가세를 보인단 말이지요. 그래서 학교폭력의 형태나 초·중·고 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세부 내역을 철저히 분석해서 맞춤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감소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경찰 자체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학교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업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비해서 이런 노력을……

사실은 과정보다 중요하지만 역시 안전하게 만드는 건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러한 지적이…… 내년에도 똑같은 결과보고서가 나오고 통계가 나올 텐데 이것 어떻게 풀어 나가실지 한번 계획과 각오를 말씀해 주십시오.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학교폭력이 민감성도 높지만 요새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경향도 있고요. 특히 예전의 물리적인 학교폭력보다는 사이버상에서의 사이버불링이라고 하는, 왕따를 시킨다든지 이런 쪽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

또 하나는 디지털 성범죄도 딥페이크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런 것도 많이 있어서 양상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대응이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폭력……

물리적 학교폭력은 최근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가 새로 생기고 그 위에 스쿨폴리스가 협업을 하는 구조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뀐 양상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특히 교육기관과의 협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사소한 징후라도 발견이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모니터링하는 그런 것들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획서에도 있지만 저희 학교폭력 전담관 작년보다 지금 5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42명이 돼서 11개교 정도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좀 더 면밀하게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면서 학교와 협업을 좀 더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잘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반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도 위원 청장님 이하 모든 분들 이번 국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국정감사 오기 전에 여야 위원님들이 모두 궁평지하차도 참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저희들도 언론으로만 보다가 처음 현장에 가 봤는데 다른 일들이야, 형사

관련된 내용이 진행되는 것 다 차치하더라도 드는 감정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이것 막을 수 있었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한다면. 도·시·경찰에서……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게 1시간 24분 전에 다른 사람이 신고한 것도 아니고 행복청 공사 감리단장이 112에 신고를 했잖아요. 그리고 미호강 곧 범람할 것 같다, 미호천교가 넘 치려 한다, 오송 주민 대피가 필요하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신고했고 또 29분 전에는 그 감리단장이 충북청 112에 했잖아요, ‘오송 지하차도 침수 우려된다. 차량 통제해 달라’. 잠길 수 있으니 차량 통제해 달라고 이걸 112에 신고했는데 그 뒤의 조치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해서 다 차치하더라도 이것 그냥 조치만 했으면 다 살릴…… 한 명도 안 죽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현장에 가서 너무너무 느꼈습니다.

청장님도 부임하기 전의 일이긴 하지만 정말 마음으로 새겨야 되실 것 같아요. 형사적 문제와 다르게 마음으로 새긴다는 문제가 이것 공직기강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래서 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직기강 다 세우셔서 정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오송 참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불운이 겹치고 누구 하나 성실하게 제대로 제 역할을 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한병도 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모두가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뿐만 아니고 이후에도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청장님, 제가 이번에 국감을 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사이버 사기 관련돼 가지고요 계속 충북청이 증가 추세에 있더라고요.

보면 2019년도에는 3454건이었는데 22년도에 5312건으로 너무 튀더라고요. 그리고 2023년도 5173건으로 추세를 보면 굉장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까지만 해서 이미 3376건이 돼서 예년도를 뛰어넘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검거율도 저희들이 한번 봤습니다. 건수는 늘어났는데 반면에 검거율은 2019년 74.2%였습니다, 충북청이. 그런데 23년도 되니까 57.1%로 확 떨어집니다. 그리고 올해는 39%까지 좀 낮아졌거든요.

지금 범죄 수법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청 검거 역량이 지금 떨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거든요.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이 우려가 맞습니까?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말씀하신 대로 사이버범죄, 특히 사이버 사기 범죄가 아주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 사이버범죄가 대개는 해외를 거점으로 두다 보니까 수사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IP를 통하는데 IP 자체가 해외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큰 사건 위주로는 전문성 있는 도의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를 하고 경찰서에서도 인력들을 교육시키고 전문화시켜서 사이버 역량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한병도 위원 물론 이를 모르는 것 아닙니다. 해외에 서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수사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이런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고도화시켜야지요. 방법을 더 찾아내야지요,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더 투입하고.

예를 들어서 큰 사건만이라고 하지만 작게 피해받은 어떤 동네의 면 단위 어르신들, 아무 이유 없이 당하신 분, 고통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한 인지를 하더라도……

이것 지금 충북청뿐만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지금 피해액이 2200에서 이제 1조 8000억으로 늘었어요. 이게 본청, 지방청…… 저들이 고도화될수록 우리는 더 고도화돼야지요, 필요하면 예산 투입하고.

검거율이나 이런 것들 지금 세종하고 충북이 꼴찌예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증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양 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리 경찰에 대한 무한 애정을 갖고 있는 창원시 의창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종양 위원입니다.

김학관 청장님,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범질서 확립을 위해서 치안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국감 준비를 위해서 애쓰시고 있는 충북경찰 여러분, 경의를 표합니다.

질의에 앞서 가지고 충북청장님, 지금 국감장이기 때문에 발언을 아주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괜히 또 자칫 잘못하다가는 발언에…… 그냥 무조건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예, 예’ 하다 보면 나중에 그게 또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환 도지사의 고발 건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신중하게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충북지사께서는 일반인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는 물론 고발된 그런 상태에 있지만 그래도 충북 160만 도민을 위해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사이기 때문에 우리 경찰하고 아주 긴밀한 협조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 현재 고소된 사건이 언제 종결될지도 모르는데 하세월 동안 고발된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 도하고 업무 협력에 있어서 좀 소극적으로 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결국 피해는 도민한테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아주 엄격하게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 있든지 도하고 긴밀히 협력해야 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히 협력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주문하고 싶습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충북도에도 중심지역관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양 위원 지구대하고 파출소가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80개가 있습니다.

○김종양 위원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80개 중 28개소가 중심관서하고 공동체관서로 묶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 효과에 대해서 아직 평가하기는 좀 이르나요?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저희 충북 같은 경우는 9월 30일 날 10개를 추가했기 때문에 아직 사실 한 달도 안 된 상황입니다.

○**김종양 위원** 물론 경찰인력이라든지 경찰장비라든지 이런 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는데 저희 지역구도 면 단위, 읍 단위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 특히 시골에 계신 분들은 며칠 동안 경찰관 한 번 보면 그때부터 우리 지역에도 경찰관이 있구나, 순찰차 보면 우리 지역에도 순찰 활동을 하고 있는 경찰 차량들이 있구나 하면서 상당히 심리적인 위안을 많이 느껴요.

그것도 아주 지역민들한테 편안함을 불러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안인데 지금 이렇게 중심관서로 묶어 가지고 거의 며칠 가도 경찰관 한 번 보기 힘들고 며칠 가도 순찰차 한 번 보기 힘든 그런 상황이 지속된다 그러면 지역민들 좀 불안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이 제도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최근 들어 가지고 우리 경찰 제도가 너무, 경찰청장 바뀌면 제도 또 바뀌고 하는 그런 잦은 시스템 변경이 과연 조직이나 아니면 국민에게 도움되는 행태일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요즘 또 형사기동대니 지금 각 경찰서에 예전에 치안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정보관들도 다 지역별로,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지요?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예, 광역 정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양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신중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청장님은 어떻습니까?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지금 새로 제도가 도입된 기동순찰대라든지 형사기동대 그리고 광역정보시스템이 올 초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안착 단계를 거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평가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국민이나 도민들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도가 바뀐 입장에서 저희는 제도 취지에 맞춰서 제대로 운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양 위원** 하여튼 계시는 동안에 정말 그 효율성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해서 가지고 앞으로 조직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을 더 높일 수 그런 제도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업무보고에서 추진 대책, 중점 추진 대책 보니까 제가 눈에 띄는 게 사이버 도박하고 교통안전 문제를 언급을 해 놔 가지고 역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제적인 안목이 있는 청장님 오서 가지고 남다른 성과를 거두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이버 도박 문제라든지 음주단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갖고 치안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년 문제나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해서 각별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양 위원** 예, 감사합니다.

○반장 신정훈 제가 존경하는 김종양 위원님 질문하는 과정의 발언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 차례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여당으로서 집행부라든가 또 답변자들의 답변을 옹호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늘 상대 위원이 지적한 바에 대한 답변까지를 규정하시면 상대 위원에 대해서……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하세요.

제가 지금 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답변에 대해서 규정하고 답변을 요청했는데 위원장의 말에 대해서 그렇게 발언을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본인의 의견을 가지고 질문을 하세요. 그걸 통해서 반박하시든지, 그거는 좋아요.

그런데 위원장이 방금 전에 답변석에 있는 증인에게, 제가 기관으로서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타한 게 아니었습니다.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많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피의자 신분의 도지사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특히 이 기관에 와서 강의하는 것이 적절하냐라는 의견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답변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셔 버리면 저는 뭐니까?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른 지적에 대해서도 존중하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 질문을 통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상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발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양 위원 위원장님, 30초만 제가 의사진행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신정훈 예, 하십시오.

○김종양 위원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저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들였다 그러면 좀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전하고요.

제가 이야기한 것은 전혀 그런 의도는 아니고. 왜냐하면 다시 한 번 더 청장이 어떤 답변을 할 때 신중을 기하라는 그런 취지로서 제가 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지금 팩트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로, 조금 전에 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댓글로부터 거기에 대해서 질의 자료를 수집했다 그러는데 댓글이라는 거는 이렇게 다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경찰청장을 했기 때문에, 그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가장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는 지사하고 단순히 그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그 관계를 단절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뉘앙스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반장 신정훈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이야기이고 주의를 촉구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김종양 위원 그리고 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제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 야당의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위원이 이야기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입을 닫고 있어야 됩니까? 그거는 아니지요.

○반장 신정훈 위원님, 제가 기관 간의 원만한 협의, 협조 이걸 이야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김종양 위원 아니, 그거는 알고 있지요. 제가 모르니까, 그걸? 그리고 지금 현재……

○반장 신정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 위원장이 지금 사회를 진행하면서 증인에게 판단 기준을 정확히 제시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김종양 위원** 저는 답변하는 사람이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언제 이렇게 답변해라, 저렇게 답변해라 한 적도 없습니다.

○**옹혜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위원장님, 저도 좀 얘기를……

○**반장 신정훈** 옹혜인 위원님.

○**옹혜인 위원** 위원장님 말씀의 취지는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저도 사실 들으면서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는데요. 기관의 답변에 대해서, 기관은 오늘 이 자리에서 국정감사를 받는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답변해야 되는 건데 기관에 입단속을 시키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여당이 기관의 발언을 입단속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발언 중간에라도 제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양 위원** 입단속이었습니까, 그게?

○**옹혜인 위원** 입단속이지요.

○**반장 신정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아니, 국정감사 하러 오셨어요, 아니면 정부 편들러 오셨어요?

○**김종양 위원** 국정감사 하러 왔지요!

○**위성곤 위원** 그러면 국정감사를 하세요!

○**김종양 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위성곤 위원** 그게 무슨 국정감사예요? 국민들이 보면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정부가, 경찰청장이 답변 하나 하면 그것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하고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배준영 위원** 아니, 지금 토론하시는 겁니까, 의사진행발언하시는 겁니까?

○**반장 신정훈** 제가 의사진행발언 드렸어요.

30초만 하세요.

○**위성곤 위원**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우리가 책무를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여당이고 야당일 수 있지요. 같은 여당이어서 정부 편을 들 수도 있습니다. 그건 논리로 드는 거고요.

그런데 국정감사에 와서 옹호하고 감싸고 이게 국정감사입니까? 민주당 위원들의 질의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다른 논리로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이끌어 내시면 됩니다. 그게 국회예요. 그런데 국회에서 시어머니도 아니고 감 놔라 배 놔라 매일 하시고……

○**반장 신정훈** 마무리해 주세요.

채현일 위원님.

○**채현일 위원** 동료 위원 발언에 대해서 그리고 피감기관이 답변한 것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전직 경찰청장을 역임했다는 이유 그것이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본청에 초청을 하고 부적절한 행사를 한다는 게 합리화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전직 경찰청장으로서 선배라면

신중한 답변이 아니라 성실하고 진실된 답변을 하라고 오히려 독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반장 신정훈 배준영 위원님.

○배준영 위원 배준영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기왕 이렇게 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된 원인은 이것 같습니다. 민주당 위원님이 증인들한테 발언을 해 갖고 답변을 얻어 내는데 이 답변이 충분치 않으면 충분치 않은 대로 끝나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외람되게도 위원장님이 그것을 받으셔서 갖고 그것을 확실히 할 때까지 계속 추가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받아 내고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할 때는 늘 그렇게 하셨으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질문을 했는데 답이 마땅치 않게 나왔을 때 위원장님께서 나서서 추가 답변을 받아 낸 적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상대방 위원들에 대한 말을 서로 터치하는 것은 저는 원치는 않지만 위원장께서도 공정하게 그쪽에 추가 질문을 받아 내셨으면 저희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불평등하게 느끼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더 나온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위원장님께 건의드리는데 좀 공평하게 해 주십시오.

○반장 신정훈 제가 이 국감장에서만 느끼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굉장히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했었고 진행자로서 최소한의 절제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답변의 취지하고는 전혀 다른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재차 이야기했던 거고 그 이야기는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라도 해야 될 이야기예요.

적절한 이야기를 심하지 않게 아주 낮은 톤으로 일반론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바로 가서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여당은…… 질문을 어떤 방식으로든 이끌어 내서 답변을 이끌어 내는 것 좋아요. 그렇지만 피감기관에다가 여당이라고 가서 답변의 가이드라인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두 번째, 지금 사회자는 그냥 개인으로서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감사반장으로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고 제가 이 자리에 혼자 오고 싶어서 온 자리 아니에요. 국민이 이 자리에 앉혀 준 거예요. 그래서 사회를 진행하는 겁니다. 저도 그러면 계속 주질문부터 보충질문, 추가질문까지 제 시간 딱 지키고 또 할까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충분히 균형을 갖고 저는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 있으면 대개는 여러분들 질문 다 끝나고 나서 제가 발언하잖아요. 그때마다 저한테 사회자만 요구하는 것은 그거는 온당치 못 해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법의 절차에 따라서, 관례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위원장의 이런 사회 진행까지를 그렇게 반박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피감기관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것 적절치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균형을 잡고 위원장이 최소한의 이 회의장의 질서를 잡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간섭하는 것은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김종양 위원 위원장님, 30초만……

○반장 신정훈 이 정도로 하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양부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부남 위원 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경찰이 검수완박에 의해서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권의 상당 부분에 독자적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예, 그렇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 이유는 검찰이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중립적이지 않고 독립적이지 않다는 판단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그러면 과연 이러한 수사권을 독립적이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담보는 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인데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저는 수사권 조정이 됨으로써 경찰에게 책임수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고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독립적으로 준비해 수사를 하지 않으면 경찰에 넘어간 수사권은 또 어딘가 다른 기관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정부에 반대되는 인사, 야당 인사들, 정부 정책에 반대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모든 수사역량을 동원해서 무리하게 법리를 적용하고 무리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무리하게 증거 해석을 해서, 무리한 사실을 인정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되게끔 엮어서 기소나 구속을 하려고 하고 그 반대의 경우, 지금 방금 말한 것도 제가 오다 보니까 피케팅하고 있는 사례가 있더구먼요. 그것도 그런 사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엮어 보자. 그렇지 않고 반대의 경우 이 정부에 옹호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 이 정부 편에 동조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고소 고발해도 수사가 지연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안 되게 해 보려고 한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청장님 어깨에 있는 계급장이 영광과 명예의 상징이 되어야지 비난과 원성과 불만의 상징이 되면 안 됩니다. 공직생활 짧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에 종사한 사람은 수사활동에 이루어졌던 모든 게 언젠가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제 말을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명심하셔서 늘 중립적이고 독립적이고 명경지수와 같은 마음으로 수사를 하셔서 받은 수사권이 다른 데로 도망가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PPT 좀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반듯한 충북경찰, 품격있는 치안’이라는 슬로건으로 도민의 사랑을 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갈 길은 먼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그동안 1년간 있었던 충북경찰의 비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2023년에 음주운전 5건이 발생했습니다. 전부 차량사고, 인사사고, 목격자 신고로 돼 있습니다. 1건도 적발이 된 것 없어요. 아마 적발했으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금년에는 새벽 4시에 순경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계석을 들이받은 사고가 났습니다. 또한 과거에 시민을 폭행한 경찰관이 다시 새벽에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만취한 경찰관이 길거리에서 자매를 성추행한 사건도 있습니다. 듣기도 민망하고 말하기도 민망해요. 그리고 전직 경찰관이 경찰관 사칭해서 여성 7명의 인적사항을 받아다가 홍신소에 넘긴 사건도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도 심각합니다. 서울 국감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분신자살을

한 사건을 우리가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여기 충북청에서도 경찰서장이 농민대회에서 부하 직원에 대해서 폭언을 하고 손찌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전 충북경찰청으로부터 경고도 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비리는 수사 은폐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잡은 피의자가 도망가니까 그것 놓치고 나서 그걸 가리기 위해서 KICS상에 석방한 것으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친형이 동생을 살해하고 112 신고한 것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것 무혐의 처분은 이의제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고발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묻힌 사건인데요. 검찰이 재질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허위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검찰이 발견해서 기소했습니다. 이 직원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원인과 이걸 막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북경찰의 가슴 아픈 사례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좀 더 잘 챙기고 기본에 잘 충실했으면 됐을 텐데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라든지 피의자 도주라든지, 더군다나 피의자를 놓치고서는 위조 형태의 석방지휘서를 작성한 문제, 그리고 형이 동생을 살해한 문제도 2년 동안 하다가 재수사를 통해서 최근에 사실이 밝혀지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여튼 저희 경찰관들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어떤 모범적인 것들이 좀 약하지 않은가, 그리고 그것들을 챙기는 중간 관리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사 지휘 관리 시스템을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사명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북돋아 주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듯한 경찰’이라는 건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하고 역할에 충실한 그런 경찰을 만들고 그런 조직문화를 만들자고 제가 호소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기강은 물론 사례에 대해서 엄정하게 처벌을 하겠지만 또 그 이면에 개개인이 얼마나 열심히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 울산 남구갑 김상욱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양부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공직기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팬찮다고 팬찮은 게 아닌데요. 정말 아무리 장비와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직기강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사고는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현장 갔다 왔지만 오송 지하차도 현장 보면서 저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공직기강이 너무 무너져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 했고.

좀 전에 잠시 말씀하셨지만 청주 형제 살인사건, 살인사건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지

요? 그렇지요, 청장님?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예, 그렇습니다.

○김상욱 위원 특히 청주, 충북 이쪽에서 살인사건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중대범죄고 형사과에서 크게 다루는 강력사건이지요?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그렇습니다.

○김상욱 위원 청장님 새로 오신 지 얼마 되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기강을 정말 새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건 보면서 저는 의아한 점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수사가 잘못되었다라는 취지로 해서 담당 수사관과 담당 수사팀장이 징계를 받았는데 징계받은 담당 수사관이 팀장 말고 수사관 1명이더라고요. 계급이 경장이었습니다. 분명히 살인사건은 중대사건이고 자주 있는 사건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경장이 살인사건을 전담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사건 배당이 왜 이렇게 되는 것이며 그리고 중대한 살인사건의 담당 수사관이 경장급 1명밖에 없었나.

저는 계속 의문이 달렸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건 배당인가? 정상적인 사건 배당입니까? 저는 좀 이상하거든요. 중대사건이라면서요, 살인사건. 경장이면 입직한 지 얼마 되지 않으신 수사관일 텐데, 형사과의, 강력계의 중요한 사건인데 수사관이 경장급 1명이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 공직기강이 흔들리고 있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청장님 혼자 하실 일은 분명히 아니겠지만 청장님께서 분명히 방향은 잡아 주셔야 됩니다. 오송 사건 현장도 그렇고 이 청주 형제 살인사건 현장도 그렇고 하나같이 다 좀 비상식적인 보고 누락, 비상식적인 사건 배당, ‘괜찮으면 괜찮은 거야’ 이런 생각들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서 많이 놀랐습니다.

청장님께서 우리 충청북도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기강을 제대로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좀 상식적이지 않은 사건 배당이라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저도 국감을 준비하면서 이 사건을 봤는데 너무 좀 잘못된 것으로, 도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욱 위원 살인사건인데 입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장급 1명이 담당 수사관이다, 이것은 아마 납득하기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약 관련된 얘기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체포를 많이 해서 마약이 많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마약이 있는데도 검거를 안 해서 건수가 적은 것은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수역학 기반 마약류 실태조사 알고 계시지요?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예.

○김상욱 위원 하수처리장 물을 떠서 마약 성분이 있는지를 분석해서 과연 그 지역에 마약이 많이 퍼져 있는지 아닌지를 검수하는 시스템인데요.

여기 보면 우리 충청북도가 암페타민 성분, 하수처리장에서 유독 많이 나옵니다. 41.28, 수치가 압도적인 1위입니다. 전국에서요. 그런데 마약 검거 건수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좀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마약류로 처벌받는 분들이 60대 이상이 좀 많더라고요. 20대, 30대도 늘고 있지만 60대 이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원인이 뭔가요? 왜 하수처리장에 암페타민이 많이 검출이 되고 60대 이상은 검거 많다고는 하는데 또 마약 건수는 적고,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예, 마약 문제는 지금 굉장히 접근이 쉽고 가격도 저렴해지다 보니까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약수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입장인데……

좀 전에 말씀하신 식약처 자료는요, 제가 부임하면서 식약처장 방문 인사를 갔을 때 저 얘기를 듣고 저 자료를 받았습시다. 그래서 식약처장님이 오송에 있다 보니까 이게 충북의 통계를 많이 관심을……

○김상욱 위원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답변 계속해 주십시오.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그런데 저 통계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김상욱 위원 통계가 잘못된 겁니까?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예, 그래서 그것을 식약처에 정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필요하시면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신정훈 1차 질의가 다 끝났는데 혹시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두 분 있으신데 혹시 더 있습니까?

두 분 그러면 3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현일 위원 이렇게 추가질의까지는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동료 위원도 문제 제기를 했고 또 피감기관의 답변도 불성실하다고 생각해서, 위증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공직기강의 문제입니다, 이게. 공명정대한 수사기관으로서 있을 수가 없는 그런 행사에 참석을 하고……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것에 보면 이 고발 사건에 대해서 총경 이상엽 수사과장, 최종상 수사부장, 김학관 치안감 청장, 결재를 했습니다.

이상엽 과장님 어디 계세요? 나와 보세요.

2024년 1월 5일 날 충북경찰청으로 청주지검에서 고발장이 접수된 그 사건 이송되고 나서 결재했지요?

○충청북도경찰청수사과장 이상엽 예, 그렇습니다.

○채현일 위원 부장한테 보고했나요?

○충청북도경찰청수사과장 이상엽 지금 말씀하신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채현일 위원 그렇지요.

○충청북도경찰청수사과장 이상엽 예, 그렇습니다.

○채현일 위원 최종상 부장님 어디 계세요?

보고받았나요? 결재했나요?

○충청북도경찰청수사부장 최종상 어떤 사건을 말씀하시는지……

○채현일 위원 부동산을, 아까 말씀드린 사건 있잖아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5개 시민단체에서 한 것, 결재를 한 것으로 이미 자료도 제가 받았어요. 그것 경찰청장님한테 보고하셨나요? 보고했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결재를 했잖아요.

○충청북도경찰청수사부장 최종상 거기 자료는……

○채현일 위원 결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면 거짓 자료를 준 건가요, 이것? 거짓이에요?

잠깐만요. 청장님, 결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그것은 좀 오해가 있는 게요……

○채현일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 결재자료라고 저희한테 보낸 자료는 뭐니까?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그 요구자료를 결재했다는 겁니다. 요구자료를 제출하는 걸 결재했다는 거고요. 이 접수 얘기하는 게 아닌……

○채현일 위원 그 피의자 사건에 대해서 청장님은 몰랐다는 게 지금도 똑같습니까, 이게?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아니, 그것 결재를 하면서 알았다는 거지요. 이번에 국감을 준비하면서 도지사 사건이 고발됐다는 것을 봤다는 걸, 그것 결재를 해 달라고 그래서 거기 기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현일 위원 수사부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질의한 것에 대해서. 아까 이 고발사건에 대해서 이송되고 나서 결재했나요? 이것 청장님한테 보고했나요, 안 했나요? 말씀해 보세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충청북도경찰청수사부장 최종상 충북청 수사부장입니다.

○채현일 위원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부장으로서—총괄입니다—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가지고 결재를 하고 청장한테 보고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확하게.

○충청북도경찰청수사부장 최종상 제가 따로 청장께 보고한 것은 없고요. 그다음에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회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 이 자료를 작성하는 사람, 이 결재자가 수사과장·수사부장·청장이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채현일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그게 부적절하게 행사에 참석한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공명정대한 수사를 하는 총책임자로서 피의자를…… 피의자가 초청된 행사에 청장님이 참석하면 수사기관 일선 경찰관이나 수사관들은 모종의 수사방향에 대해서 암시가 되고, 매우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겁니다. 이 자리에서 청장님, 그 행사에 참석한 것에 대해서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신정훈 청장, 답변하세요.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선서를 한 입장에서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상황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치경찰 경찰관들에게 도지사로서 특강을 하기 위한 자리고 저희 전체 경찰관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경찰청에 있다 보니까…… 저희 청에서

하는데 제가 안 가 보는 것도 사실은 적당하지 않아서 간 거고, 이 사건이 접수되고 진행 중인 사항은 이번 국감을 준비하면서 이번에 알았고 저기에 서명한 것은 이 자료를 책임지고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거기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반장 신정훈 질문의 취지가 그게 아니잖아요.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상황을 몰랐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상황에 임박한 사건들이 있었으면 저희가 다르게 처신하든지 했을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위원장님 당부 말씀대로 저희가 적절한 상황을 조심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 올린 겁니다.

○반장 신정훈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장 신정훈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총선 전인 3월 23일 날 있었던 충북 보은 지역주민 야유회 선거법 위반 수사가 진행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민주당을 겨냥한 조작 수사라는 의혹과 지역주민의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어요. 이 사건 아시지요?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보은군 회인면 주민 야유회 출발 전에 관광버스에서 2분가량 정당의 후보 지지를 호소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면서 A씨의 배우자 B씨가 야유회에 동반해서 식사 비용과 유람선 비용을 지불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압수수색영장 신청하고 발부했지요?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예.

○이광희 위원 그 영장에는 A씨의 배우자가 각종 비용을 지불했다고 허위사실을 기재했고 사실관계도…… 그러니까 정확한 내용으로는 신고된 현장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던 엉뚱한 사람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고 집행해서 휴대전화 및 블랙박스 등을 모두 압수해 갔다는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예, 저희들이 압수수색영장에 등재된 3명은 하고요, 1명은 오기가 났기 때문에 그 압수수색은 반납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 이후에 압수수색을 반납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는 엉뚱한 사람, 차에 올라가서 관광버스에서 호소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혹은 식사 비용이나 유람선 비용 지불을 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지금 한 거지요?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그게 했을 거라는 게 아니고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제보자나 유력한 증인이 얘기를 해 줬기 때문에 특정한 겁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데 참석자들은 그 사람이 후보 지지를 한 것도 듣지 못했고 그 배우자는 현장조차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면 실수로 압수수색영장을 한 거잖아요. 사과하셨나요?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예, 이것은 그 당시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참석자 중에서 하필이면 60대부터 90세까지 있었는데 90세 고령인 할머니를, 그것도 해남치안센터는 미운영한 지가 벌써 몇 년 됐는데 그러면 폐쇄된 건물에서 장시간 조사했다면서요?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그것은 일부 언론에 보도가 나왔었고요.

○이광희 위원 사실이 아닙니까?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아니, 하긴 했는데 그 89세 할머니만 한 게 아니고 거기가 대개 노인분……

○이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고령의 인사를 모시고 가려면 가족들에게 연락도 하고 그러셨어요?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거기가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고 6명을 조사했는데 그중 한 분인 거지요.

○이광희 위원 그분들의 주장은 어쨌든 강압적 수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엉뚱한 사람들한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게 한 거잖아요,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거잖아요.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결과적으로는 회비에서 지출한 걸로 이렇게 확인이 돼서 다 불송치했습니다.

○이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비에서 했는데 결국은 수색영장을 잘못 발부했고 잘못된 수사를 했고 엉뚱한 사람을 데려다가 폐쇄적인 공간에서 수사를 한 것 아닙니까, 경찰이? 그렇지요?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하여튼 일부 영장 문제는……

○이광희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한 것 중에서 잘못된 게 있어요? 일부가 뭐가 잘못됐어요?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그 엉뚱한 것…… 엉뚱한 게 아니라 89세 그분은 같이 가신 분이구요.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하필이면 90살 된 그분을 폐쇄된 공간에서 수사한 거잖아요.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그러니까 그분 것만 부각돼서 그렇고 나머지 다섯 분이 또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아니, 그런데 하필이면 왜 폐쇄된 공간으로 가서 수사를 하세요?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그분이……

○이광희 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결국은 애먼 사람들이었잖아요.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아니, 그건 아니고 같이 여행을 가신 분이고 이것은……

○이광희 위원 이 사람들이 선거법 위반을 했다는 겁니까?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아니, 그 비용을 누가 냈는지를 확인하다 보니까……

○이광희 위원 그래서 결국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수사 결과가.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그러니까 그 89세 할머니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한 거고요 본인이 사람 안 보이는 데 가서 조사를 해 달라 해서……

○이광희 위원 어쨌든 이번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 측 사람들의 주장은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특정해서 이에 대해서 과도한 수사를 했다는 주장이에요. 그렇게 느낍니다, 저도.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수사는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 중립을 확실하게 지켜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지켜 주세요. 이것 애먼 사람 잡은 겁니다.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반장 신정훈 청장님, 충북경찰청이 운영하는 치안정책 홍보 목적의 공식 SNS 계정이 해킹당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예, 그렇습니다.

○반장 신정훈 그 이후에 조사도 해 보시고 또 치유도 하고 그랬습니까?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저희 경찰청 페이스북 계정이 해킹당한 사실을 알고 바로 저희가 수사에 착수를 했고요, 페이스북 본사에까지 연락을 해서 그 IP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IP 주소를 확인하니까 홍콩에서 된 거라 지금 국제협력을……

○반장 신정훈 좋습니다.

일단은 치안 그리고 개인정보, 굉장히 중요한 보안사항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는 경찰청이, 그것을 단속해야 될 경찰청이 오히려 해킹당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내용이라, 그 후에 보안 장벽이라든가 보안시스템을 좀 더 강화했는가요?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단순히 비밀번호만으로 개인 같이 들어가는 것을 지금 2단계 시스템으로 했고요. 페이스북은 아직 개선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장 신정훈 그 후에 중단시켰습니까?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예, 그렇습니다. 폐쇄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반장 신정훈 보안시스템에 대한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그것에 대해서 실제 지금 검토를 사실상 바로 이어서 하기에는…… 보안시스템이 결국 페이스북에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페이스북 대신에 카카오톡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다른 SNS 계정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2단계 조치를 취했습니다.

○반장 신정훈 여기 SNS 계정은 충북경찰청 자체적인 계정입니까?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그렇습니다.

○반장 신정훈 다른 청에서는 운영하지 않습니까?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전혀 연계가 돼 있지 않습니다.

○반장 신정훈 다른 청에서는 운영하지 않느냐고요?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각자 운영합니다.

○반장 신정훈 경찰청 내의 CCTV가 대부분 다 해킹에 취약한 중국산으로 지금 배치돼 있다, 특히 충북경찰청의 경우는 수련원에 설치된 모든 CCTV가 중국산이다…… 해킹에

취약한 이런 장비를 쓰는 것이 경찰청의 업무라든가 업무의 특수성, 보안의 필요성 이런 것에 비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이번 국감을 통해서 저희도 그게 중국산인지 다 알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별도 서버를 운영하긴 하겠지만 국정원의 보안 검증·인증을 받은 국내 산으로 전원 바꾸려고 예산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장 신정훈 함께 철저한 대책을 세워 주셔 가지고 경찰 업무뿐만이 아니라, 국가 공공기관이 그런 취약한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이번 기회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철저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경찰청장 김학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장 신정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충청북도의 치안·교통안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꼼꼼히 파악하시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경찰력 집행과 수사력이 행사될 수 있도록 조직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고 권력자에게는 엄정한 잣대를 적용해서 도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충북경찰의 위상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송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항상 공동체 붕괴라는 가슴 아픈 그런 결과가 따라옵니다. 경찰관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라는 마음으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과 예산, 장비 보강같이 국회가 도울 일이 있다면 위원장을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응원군이 되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가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고 재점검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 국정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 중에 위성곤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 한병도 위원님, 김상욱 위원님, 김종양 위원님, 배준영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서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국정감사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국정감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 말씀 드립니다.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충북경찰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신 국회 보좌진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서 취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함께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라남도와 전남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11인)

김상욱 김종양 배준영 신정훈 양부남 용혜인 위성곤 이광희 정동만 채현일
한병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전문위원 서기영

○피감사기관 참석자

충청북도경찰청
청장 김학관
공공안전부장겸 생활안전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수사부장 최종상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김기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목성수
형사과장 양윤교
여성청소년과장 김용원
수사과장 이상엽
홍보담당관 노광식
치안정보과장 박희규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손휘택
경비과장 윤원섭
교통과장 신광수
범죄예방대응과장 이규환
안보수사과장 나인철
형사기동대장 김항년

○출석 증인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남성현(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